

numbers 제 74호



주요 내용

2020. 12.04

1. 이번 주 주제 : [죽음]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2. 1)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2) 서울시 1인 가구, 50대 후반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미국, 코로나 1일 사망 3,157명!, 하루 하루가 911 같다!’ ‘전 세계 인구 코로나로 9초당 1명 숨져!’ 최근 1~2일 사이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기사 헤드라인이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 마다 섬뜩하기만 하다. 코로나19 통계 뉴스가 이제 일상이 되면서 올해처럼 언론을 통해 사망, 죽음이란 단어를 많이 접해본 적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죽고 싶을까... 얼마 전부터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다. 좋은 죽음이란 뜻일텐데, 그만큼 국민 인식 가운데 이젠 죽음도 의미있게 죽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74호는 한국인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좋은 죽음(Well Dying)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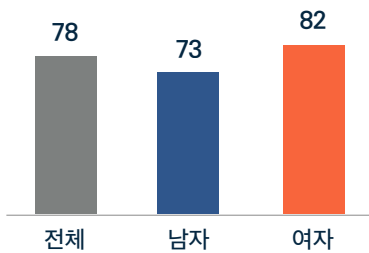
1



40대 이상 중장년층 대부분, '자기 죽음' 생각한 적 있어!

- 우리나라 40대 이상 중장년 대부분(78%)이 평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을 정도로 '죽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일부가 되고 있음
- 성별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73%, '여자'는 82%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여자가 남자보다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그림] '본인의 죽음 생각한 적 있다'는 비율 (%)



*자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2018.12 (전국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1,500명, 전화 조사, 2018. 9.15~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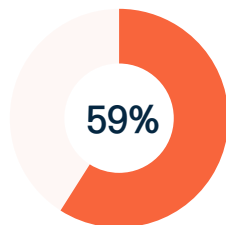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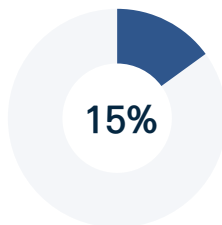
죽음, 우리 국민 5명 중 3명 '두렵다!'

-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려움'을 꼽음. 죽음이란 것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사람이 전체 5명 중 3명 꼴인 59%로 나타남
- 그렇다고 오래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100살 넘게 살고 싶은 사람'은 15% 밖에 되지 않으며,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응답자의 절반 이하인 4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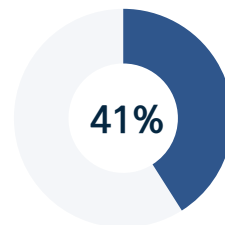
[그림] 죽음에 대한 생각(동의율)



'죽음'이란 것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든다



나는 100살 넘게 살고 싶다



요즘처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축복이나 다름없다

*자료 출처: 트렌드모니터, '죽음 및 상조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 2019.05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 5.23~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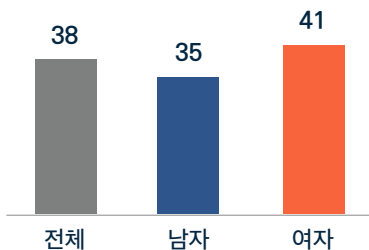
3



사후 세계, ‘존재한다’ 38%

- 사후 세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남. 이들이 믿는 사후 세계는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 처럼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또 다른 사후 세계일 수 있음
- 사후 세계를 믿는 것을 성별로 나눠 보면 남자는 35%, 여자는 41%로 여자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남

[그림]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비율 (%)



*자료 출처: 두잇서베이,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18.02
(전국 만 14세~99세 성인 남녀 3,491명, 온라인 조사, 2018. 1.31~2.08)

● 사후에 ‘천국에 계속 있을 거 같다’ 14%(현 기독교 인구의 절반 비율)

- 사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무 곳도 가지 않고 무(無)로 돌아간다’는 의견이 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천국에 계속 있을 것 같다’ 14%, ‘천국에 있다가 환생할 것 같다’ 10%, ‘아무 곳에도 가지 않다가 환생할 것 같다’ 9%, ‘잘 모르겠다’ 26% 등 다양한 의견으로 나타남.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각자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 특히 ‘천국에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14%로 나타났는데, 현재 기독교, 즉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 가량(2015년 인구센서스조사)인데 ‘사후 천국 생활 인식’은 그 절반에 머무르고 있음

[그림] 사후에는 어떻게 될까? (동의율, 상위 5개) (%)



*자료 출처: 두잇서베이,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18.02
(전국 만 14세~99세 성인 남녀 3,491명, 온라인 조사, 2018. 1.3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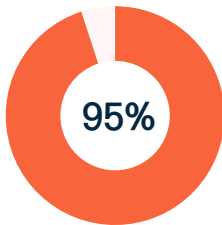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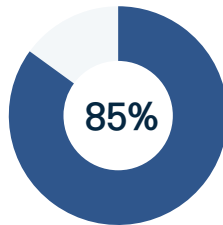
좋은 죽음(Well Dying)이란 1, '준비된 죽음이다'

- 최근 '웰 다잉'(Well Dying), 즉 '좋은 죽음'을 맞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죽음'이란 갑작스럽게 맞이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치뤄지는 죽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95%)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85%) 준비하는 죽음으로 응답함
- 준비된 죽음이란 우선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인데,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88%)이라 생각하고 있음
- 준비된 죽음이란 장례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장기 기증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것을 본인이 미리 정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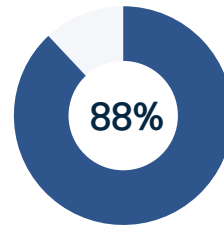
[그림] 좋은 죽음이란(동의율)



죽기 전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죽음



죽음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는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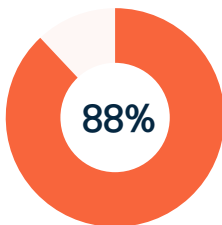
죽을 때 두려움
없는 죽음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2018.12(전국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1,500명, 전화 조사, 2018. 9.15~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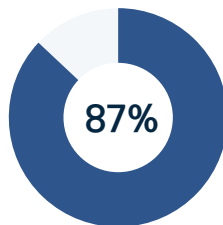
● 좋은 죽음(Well Dying)이란 2,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목숨만을 연명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87%)

- 우리 국민은 죽는 순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함(88%)
- 명의 상태인 채로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목숨만을 연명'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함(87%)

[그림] 원하는 죽음(동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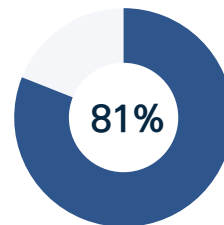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



나는 내가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다

[그림] 좋은 죽음이란(동의율)



임종 때 정신이
온전한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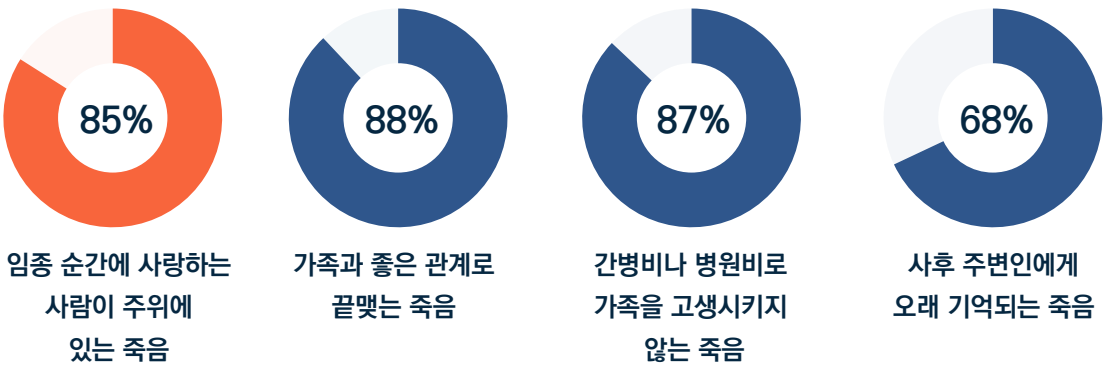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죽음 및 상조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 2019.05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 5.23~5.27)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2018.12(전국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1,500명, 전화 조사, 2018. 9.15~9.18)

● 좋은 죽음(Well Dying)이란 3,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죽음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고독한 순간임. 그래서인지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좋은 죽음이다'(85%)라는 인식이 강함
- 죽을 때 '가족들과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지 않으며'(88%) '간병비나 병원비로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길 원하고 있어'(87%), 자신이 죽더라도 남은 가족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남
- 또한 사후 주변인에게 오래 기억되는 죽음을 원함(68%)

[그림] 좋은 죽음이란?(동의율)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2018.12(전국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1,500명, 전화 조사, 2018. 9.15~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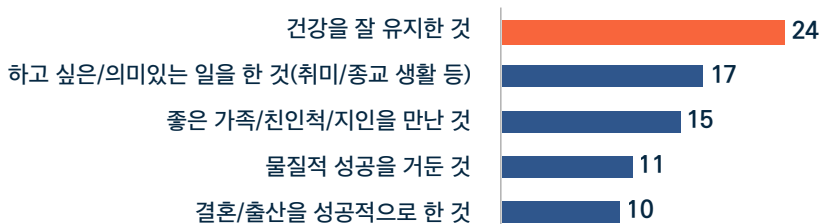
5



죽기 전에 '잘했다'고 생각한 것, '하고 싶은/의미 있는 일을 한 것' 17%

-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할만한 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건강을 유지한 것'(24%)이라고 응답함.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러난 응답으로 보임
- 두 번째로 '잘 했다'고 응답한 것은 '취미/종교 생활처럼 하고 싶은/의미있는 일을 한 것'(17%)으로 나타남.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 학력 등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죽음'이라는 절대적 한계 상황 앞에서는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추구해서 사는 삶이 인생의 의미를 더해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좋은 가족/친인척/지인'을 만난 것(15%)도 '잘 했다'고 생각한 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죽기 전에 '잘했다'고 생각한 것(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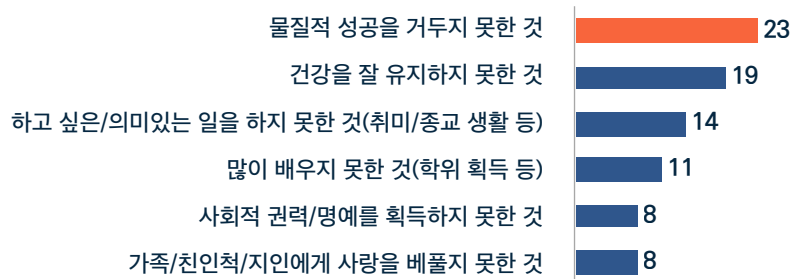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18.02(전국 만 14세~99세 성인 남녀 3,491명, 온라인 조사, 2018. 1.31~2.08)

● 죽기 전에 인생에서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한 것, '물질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23%

- 죽기 전에 인생에서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것은 '물질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23%)이라고 응답함. 두 번째로 후회스러운 것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 것'(19%)이었으며 그 다음은 '하고 싶은/의미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14%), '많이 배우지 못한 것'(1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건강'(2위)과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3위)이 인생의 행복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이 자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 주목할 것은 '물질적 성공'이 1위, '학력'이 4위로 나타난 것인데, 이 두 요인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돈과 학력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사회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죽기 전에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한 것(상위 6위) (%)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18.02(전국 만 14세~99세 성인 남녀 3,491명, 온라인 조사, 2018. 1.31~2.08)



시사점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목도한다. 가까운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고사든 자연사든,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음은 우리 일상의 근처에 있다. 그러나 죽음이 언제 찾아오는지조차 그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알 수 없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불현듯 죽음은 그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조사 결과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의 5명 중 4명 가까이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3쪽). 또 죽음은 우리 국민의 5명 중 3명 정도가 응답한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안겨다 준다(3쪽).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곁에 두고 살지만 좀처럼 죽음을 대면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일까, 성경의 나오는 한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살아 있는 자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전도서 7:2)고 일찍이 말했는지 모르겠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죽음은 좋지 않은 것, 생명은 좋은 것이라는 보편적 인식에서 '좋은 죽음'(웰다잉)은 왠지 낯설다. 2000년 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가 있었다. 미국인은 '좋은 죽음'을 '통증으로부터 해방', '영적인 평화', '정신적인 각성' 등으로 꼽았고, 영국인은 '익숙한 환경', '존엄과 존경 유지', '희망하는 곳에서 임종'을 꼽았다. 상대적으로 고령사회에 속하는 일본은 '신체/심리적 편안함', '희망하는 곳에서 임종', '의료진과 좋은 관계' 등을 꼽았다. 이렇게 사회와 문화마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번 호 한국인의 죽음 인식을 더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을 요약해 보면 죽음을 준비하고, 자기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주고, 죽은 후에도 주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죽음이다(5-6쪽).

우리 사회 역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연명 치료 결정을 미리할 수 있는 사전 연명치료 제도 등록 건수가 등록 2018년 첫째 10만 여건에서 2020년 10월 말 기준 74만 여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사회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죽음에 관하여>에서 '충분히 슬퍼하되 깊은 소망을 갖고'라고 이야기한다. 죽음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와 잠시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야 한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는 종교이다. 그 소망이 분명하고 큰 사람은 누구보다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받는 현실의 손해를 기꺼이 무릅쓸 수 있다. 이것이 지금의 과학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의 소망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 소망을 심어주는데 현대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교회가 실제로 죽음으로 다가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질고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첫 관문인 죽음과 그 죽음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성도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교회의 가르침과 역할을 기대한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윤리/가치관/정체성/목표 달성' 측면에서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2배 이상 높음
2.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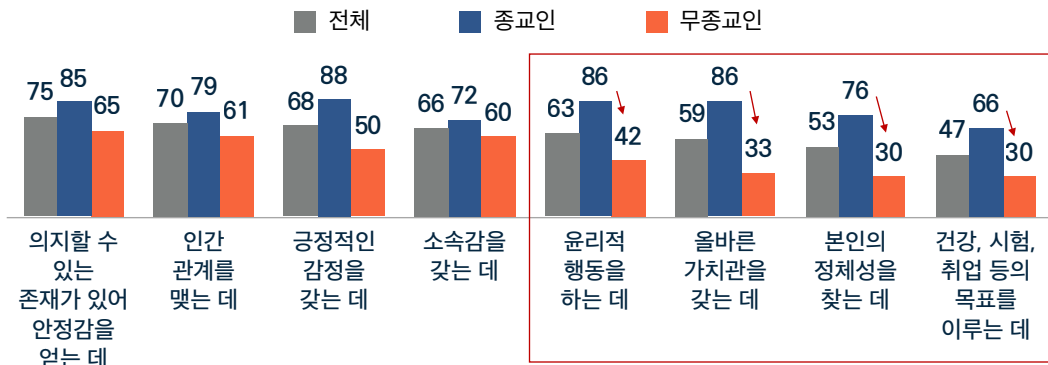
1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윤리/가치관/정체성/목표 달성' 측면에서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2배 이상 높음

- 최근 한국인들의 종교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중 주요 결과를 소개함
- 몇 가지 삶의 성과를 제시하고 종교를 믿는 것의 도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종교 유무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종교인이 무종교인에 비해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아,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 높은 긍정적 효능감을 보임
- 무종교인은 '윤리적 행동'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 '본인의 정체성 찾기'와 '목표 달성' 측면에서 종교인과 비교해 2배가 넘는 큰 차이로 낮은 긍정률을 보여 주목됨
- 종교의 본령인 올바른 가치관과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에 따른 윤리적 행동 등에 있어서 무종교인의 이러한 낮은 인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됨

[그림]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도움이 된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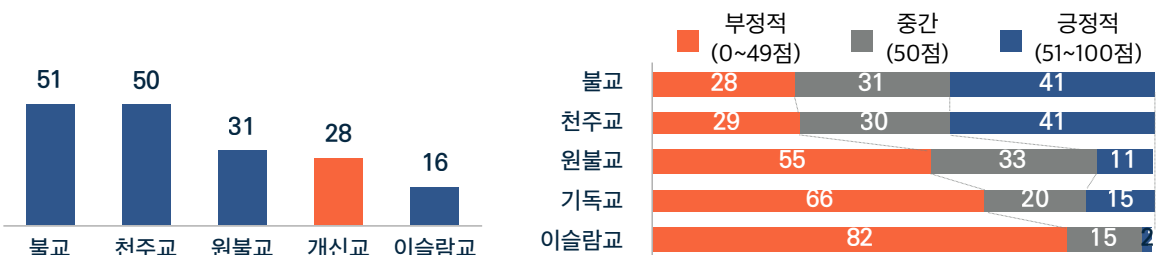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종교 인식 조사-주요 종교별 호감도, 종교의 긍정적 효과 등', 2020.11.24.(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웹조사(모바일, 이메일), 2020.10.30.~2020.11.02.)

● 한국인의 종교별 호감도, 5개 종교 중 개신교 4위!

- 주요 종교에 대해 감정 온도 방식(매우 차갑고 부정적 감정인 0점에서 매우 뜨겁고 긍정적 감정인 100점)을 사용해 호감도를 측정하였는데, '불교'가 51점, '천주교' 50점, '원불교' 31점, '개신교' 28점, '이슬람교' 16점 순으로 나타나 '개신교'는 불교와 천주교 등 주요 종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임
- 특히 '개신교'의 경우 부정적 응답률이 66%로 나타나, '이슬람교'(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
- 지속해서 '개신교' 비호감도가 높은 점은 이미지 개선 뿐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개신교의 깊은 반성과 깊이 있는 개선점을 더 깊이 고민하고 모색할 것에 대한 높은 요구로 보임

[그림] 주요 종교별 호감도 (점) [그림] 주요 종교별 호감도(긍/부정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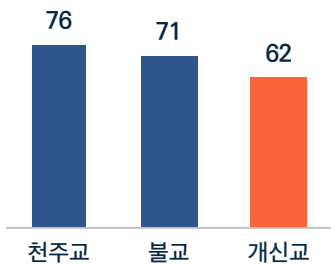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종교 인식 조사-주요 종교별 호감도, 종교의 긍정적 효과 등', 2020.11.24.(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웹조사(모바일, 이메일), 2020.10.30.~2020.11.02.)

** Note :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 감정,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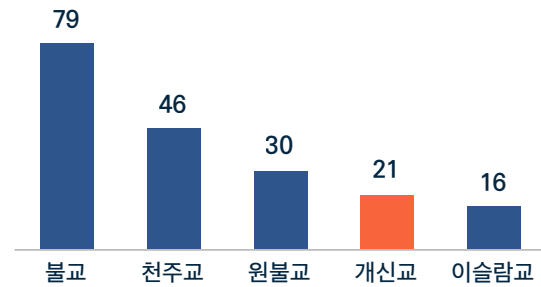
● 종교적 자부심, 주요 세 종교 중 ‘개신교’가 가장 낮음

- 본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는 ‘천주교인의 천주교 호감도’ 76점, ‘불교인의 불교 호감도’ 71 점, ‘개신교인의 개신교 호감도’ 62점으로, 개신교인의 자기 종교 호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종교의 자부심 측면에서 타 종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무종교인의 종교 호감도 역시 ‘개신교’가 21점(불교 49점, 천주교 46점)으로 이슬람교를 제외한 주요 종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개신교 vs 천주교 vs 불교) (점)



[그림] 무종교인의 종교 호감도 (점)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종교 인식 조사-주요 종교별 호감도, 종교의 긍정적 효과 등', 2020.11.24.(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웹조사(모바일, 이메일), 2020.10.30.-2020.11.02.)

** Note :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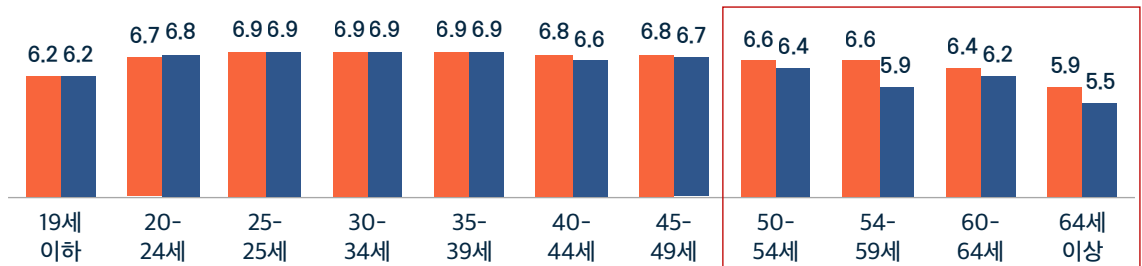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행복도를 조사하였는데, '1인 가구' 행복도를 다인 가구주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다인 가구주에 비해 40세 이상 연령 층에서 1인 가구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0대 후반 이후 행복도의 낙폭은 주목할 지점임
→ 교회 내 이들 연령층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해 보임

[그림] 연령에 따른 행복도 비교(다인 가구주 vs 1인 가구, 10점 만점)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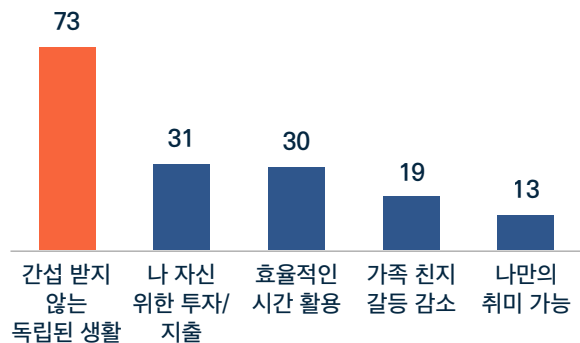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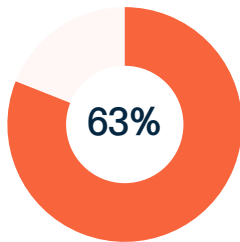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가구는 33.9%...40년 만에 16배 증가, 2020.11.25.(2019 서울서베이, 서울시)
** 10점 만점 기준

● 서울시 1인 가구 63%, '1인 가구로 계속 남고 싶어!'

-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계속 희망을 조사한 결과, '1인 가구'의 63%가 '1인 가구로 계속 남고 싶다'고 응답함
- '1인 가구'로 사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생활'이 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 자신 위한 투자/지출' 31%, '효율적인 시간 활용' 30%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1인 가구의 계속 희망율 ('1인 가구로 계속 남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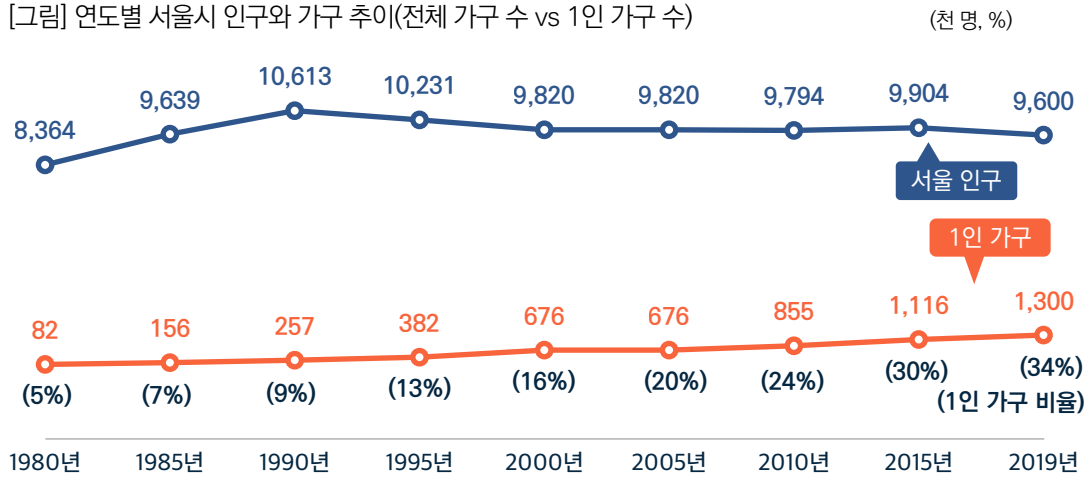
[그림] 1인 가구 만족 요소(복수 응답, 상위 5위) (%)



*자료 출처 : 서울시, '서울시민 온라인 조사' 2020.11.25.(서울 거주 만 18-65세(고교생 제외), 1인 가구 500명 2인 가구 이상 500명, 2020년 10.16-10.21)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가구는 33.9%...40년 만에 16배 증가, 2020.11.25.)

● 서울시 3가구 중 1가구,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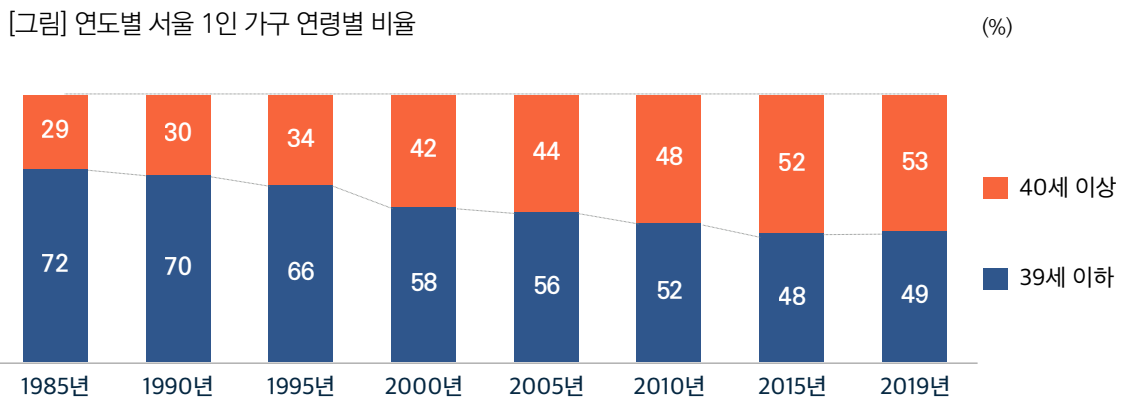
- 2019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130만 가구로 조사되었는데, 1980년 8.2만 가구에서 40년 만에 약 16배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서울 380만 가구의 34%를 차지함
-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서울의 '1인 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자료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가구는 33.9%...40년 만에 16배 증가', 2020.11.25.(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2019년 서울에 사는 연령별 1인 가구 형태, 40세 이상에서 53%를 차지!

-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연령별 비율에 대해서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20~39세)가 유입되던 1994년 이전 '1인 가구'는 39세 이하에서 70%를 차지하였는데, 2015년 이후에는 '40대 이상'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만혼/비혼 등이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자료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인구는 감소해도 1인 가구는 33.9%...40년 만에 16배 증가', 2020.11.25.(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일
반
/
코
로
나
1
9

[점심도 못 먹는 택배기사, 택배기사 실태조사\(고용노동부\)](#)

중앙일보_2020.12.02.

[늘어난 기대수명...2019년생 83.3년 vs 1999년생 75.5년](#)

연합뉴스_2020.12.01.

[자살자, 10명 중 9명은 '경고신호' 보내](#)

연합뉴스_2020.11.27.

[폐경 때 많이 겪는 증상 1위 '불면증 및 수면장애'](#)

연합뉴스_2020.12.01.

[“웃벳고 영상통화 할래?” 이말에...피해자 99%가 남자 ‘몸캠 피싱’](#)

조선일보_2020.11.28.

[대의민주주의,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일보_2020.12.01.

[코로나 우울 잡으려다 우울한 ‘혼술 늙’ 빠질라](#)

한국일보_2020.11.30.

경
제

[“세계 경제, 내년 2분기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백신 거부감이 복병](#)

아주경제_2020.11.27.

[“매출 상위 220개사, 이익 감소에도 사회공헌지출 15% 증액”](#)

연합뉴스_2020.11.29.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 구매’ 경험...“거부감 줄어”](#)

연합뉴스_2020.11.30.

큐
레
이
션

- 코로나19 세계적 상황

[북반구 폭발적 확산... 실내 활동 많아져 더 위험](#)

동아일보_2020.11.28.

[첫 ‘코로나 겨울’ 왔다...11월 전세계 확진 1천715만명 월간 최다](#)

연합뉴스_2020.12.02.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73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과천제일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